식생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 및 수용집단분류에 관한 연구

김 효 정*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 · 소비자학과 조교수)
김 미 라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농, 축, 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자급도가 낮아 많은 작물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이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정도를 토대로 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수용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대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600부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5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검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전체응답자의 4.5%만이 '들은 적이 있으며 잘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수용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68.4%가 '섭취하겠다', 27.3%가 '절대로 섭취하지 않겠다', 4.3%가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비율에 비해 구매하겠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수용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관한 정보탐색도를 판별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한 결과, 연령,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관심도,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탐색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홍보책자의 배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